

# 우리 시대 가장 건강한 삶의 공간

《그리운 장날》 펴낸 이흥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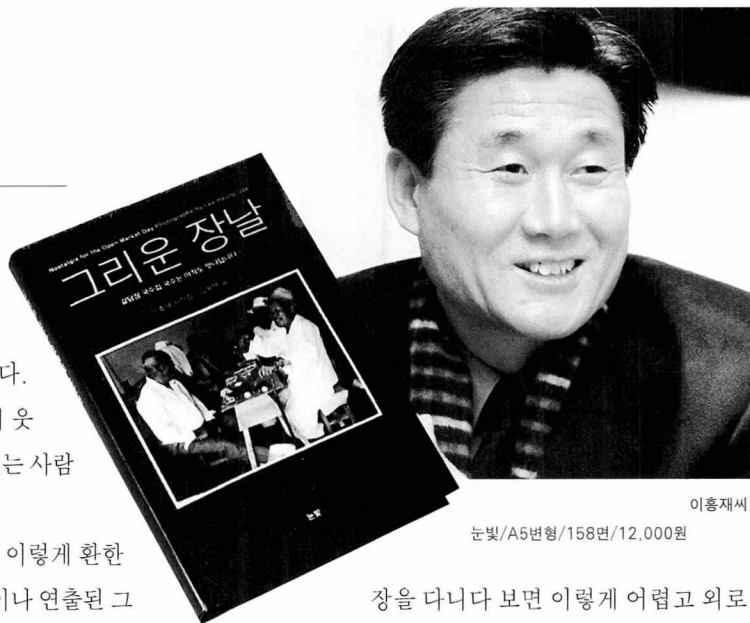
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다. 장날. 술친 한 귀퉁이에서 한 사람이 상대편 손을 끌어잡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 분명 오랜만에 만난 사람 둘이 서로 농을 걸고 그 농에 대거리하며 웃는 모습일 것이다. 웃음은 술친 주변에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번져, 사진은 봄날 햇빛처럼 환하다.

사진작가 이흥재씨(48)가 펴낸 사진집 《그리운 장날》(눈빛)은 이렇게 환한 장날 풍경으로 채워져 있다. 그의 사진에서는 과장된 삶의 고단함이나 연출된 그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00년에 펴낸 《그리고 구멍가게가 있기 전에는?》(안도현 글, 실천문학사)에 이은 두번째 사진집인데, 모두 장날 사진이다.

“사진작가들은 찍기 쉬운 소재로 장날을 많이 꼽아요. 급변하는 시대의 쓸쓸하고 허름한 한 귀퉁이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장이야말로 삶의 본질에 닿아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며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곳이 바로 장이에요.”

그가 장날 풍경을 사진에 담은 건 올해로 15년 정도. 그 동안 줄곧 그가 사는 전주를 중심으로 주변 장들을 제 집 드나들 듯 돌아다녔다. 그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전에는 결코 카메라를 들이대고 셔터를 누르지 않는다. 여러 번 찾아가 얼굴을 익히고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얘기할 정도가 돼야 비로소 셔터를 누른다. 그의 사진에 들어온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이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것도 바로 이런 노력 탓이다. 이제 그들과는 한 식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에게 장에 가는 일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순창 복흥장에서 고무신을 팔던 아저씨는 얼마 전 협심증 때문에 장옥(점포)을 접었다. 이렇게 주인이 병들거나 죽어서 장사를 그만둘 경우 장옥이 아주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장에서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이 쓸쓸해진다.



이흥재씨  
눈빛/A5변형/158면/12,000원

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외로운 삶을 만나야 하는 때도 많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안부가 궁금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탓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달관한 듯한” 표정을 발견하면 그 역시 금세 환해진다. 그것 또한 장이 주는 기쁨이다.

“삶의 중심이었던 곳이 삶의 주변으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장은 우리 시대의 가장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공동체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곳이거든요.”

이 책에는 순창장, 길담장 추억을 더듬는 시인 김용택씨의 글도 그의 사진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독립적인 김용택씨의 글은 이씨의 장날 사진과 한몸처럼 잘 어울린다. 이씨의 사진과 김씨의 글은 주변으로 물러나 있던 장날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팔팔하게 살아 있게 한다. 그들의 ‘장날’은 우리 삶의 가장 건강한 부분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삶의 생생한 그리움이다. —김장근기자

독자 여러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판 / 교육 / PDF ZONE / DTPWEEK

JS 진술북스   Web-DTP-Graphic   진술컴퓨터   PDFZONE   DTP WEEK

# 오페라 속에 숨어 있는 일곱 빛깔의 사랑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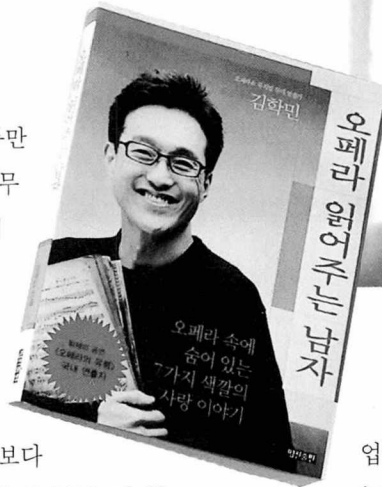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펴낸 김학민씨

영화나 연극이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오페라란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든다. 아마 그 반응은 이렇지 않을까. 오페라? 너무 호사스런 귀족들의 취미,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웬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심오한 예술 등.

그러나 오페라·뮤지컬 무대 연출가 김학민씨(40)는 이런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아니 안타깝다 못해 답답하다. 오페라를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페라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정작 그 본질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현실을 보며 못해 오페라의 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나섰다. 그가 펴낸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명진출판)는 오랫동안 편견의 틀 속에 갇혀 있던 오페라를 우리 삶의 곁자리로 불러낸 의미 있는 책이다.

“오페라에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온갖 사연들, 사랑과 질투, 역사와 인간, 종교와 인생 등이 진솔하게 녹아있어요. 때문에 오페라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줄거리를 아는 것이죠. 줄거리를 알지 못하면 공연을 봐도 오페라의 깊은 맛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는 이 책에서 음악과 연극의 다양한 표현들이 총망라된 오페라를 '읽어' 준다. 겉치레 같은 온갖 형식과 음악적 수사를 떠나 오페라 속에 깃든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일까, 책 속엔 감상을 방해하는 음악적 요소들이 대거 생략돼 있다. 또한 여러 오페라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한 오페라만 고른 것도 좀더 대중에게 다가서려는 배려에서다. 그가 예술평론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작품을 재해석하고 유머 넘치는 입담으로 소개하는 오페라 속 사랑이야기는 모두 일곱 가지.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죽음으로 완성된 비극적 사랑을, 〈카르멘〉은 유혹과 애증으로 짠 사랑의 야수성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코지 판 투테〉는 어설픈 사랑 소동을 통해 사랑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았다.



김학민씨

명진출판/B5/232면/9900원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이 없는 무대 작업은 무의미합니다. 그저 원본 텍스트를 답습할 뿐이죠. 적극적으로 '우리화' 하지 않으면 오페라는 그저 우리와 정서가 맞지 않는 서양음악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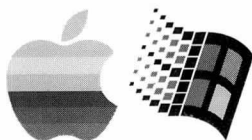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초연 후 지금까지 뒤편 히트하고 있는 화제의 공연 〈오페라의 유령〉의 국내 연출가라는 명함과 한국인 최초 오페라 연출실기 박사학위 취득 등 독특한 이력은 음악을 향해 매진해온 그의 남다른 열정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에게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같은 시절이 있었다. 영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던 대학시절엔 영문학도였고, 군대를 제대한 후 음악이 생활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의무감에 괴로워하던 시절엔 경영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좌절과 망설임 끝에 다시 찾은 음악은 이제 그의 삶의 전부이자 존재 확인법이 됐다.

공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다음엔 뮤지컬 해설서도 펴낼 생각이란다.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이 부럽기만 하다. —박옥순 기자

## 매킨토시·IBM 전문 종합출력

매킨토시, 워디안, 아래아한글, 코벨드로, 페이지메이커,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훈민정음 등등

노하우와 고품질의 자부심을 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페이지물 자동 하리꼬미 무료!!  
24시간 출력!! (일요일, 공휴일은 사전예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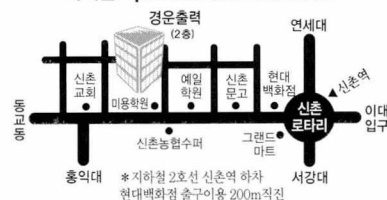
칼라복사 대형칼라실사출력  
ELC/CLC 칼라레이저출력  
분판필름출력(사육전지)  
고해상도대형드럼스캔

- 흑백레이저프린트 ● 흑백필름 ● CD백업
- 바코드파일 ● 원색교정 ● OHP필름 외

\* 최신 '정운서체전본'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 ① (IBM, 매킨토시) 페이지물 자동 하리꼬미 무료
- ② IBM 분판필름출력 및 하리꼬미 출력
- ③ 폰트뱅크 아질수 목판글꼴, 온디자인 팔체 전용출력
- ④ 산돌2000 옛멋글씨 등 다양한 최신서체 전용출력 (온, 국민서체, 폰트뱅크, 산돌, 소프트매직, 한양, 한컴 외)
- ⑤ 로얄 다국어폰트 출력(서울시스템 일본어, 중국어)

데이터전송 : printok.webhard.co.kr  
이메일 : printok@korea.com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현대백화점 출구 이용 200m 직진

## 칼라복사 500원

- 1~19장 1000원
- 20~49장 900원
- 50~99장 800원
- 100~299장 700원
- 300~499장 600원
- 500장 이상 500원 (80g A4 기준가격임.)

\*CLC 다량출력 상담원영

신촌로타리 '경운출력' 경운기획 대표상담전화 323-6365 팩스 333-0208